전남, 벼 재배면적 20년간 10% 줄었다

올 19만ha … 쌀값 하락·소비 감소로 더 줄어들 듯

쌀값 하락과 쌀 소비감소 등의 여파로 지난 20년간 전남지역의 벼 재배 면적이 10분의 1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적으로는 벼 재배 면적이 20년새 26%가 줄어들어 쌀 수확량 감소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8일 내놓은 '2008년 벼·고추 재배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전남에서 벼 농사를 짓는 땅은 18만9천231ha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2.0% 감소한 것으로, 20년 전인 지난 1987년(21만1천514ha)에 비해선 10.5%나 줄어든 수치다.

전남의 논 면적 감소는 쌀 농사의 소득 하락과 쌀 수입 증가에 따른 쌀값하락 우려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쌀값 하락 등 농지 수익성 하락으로 인해 도내 논이 차지하는 면적이 20년새 10분의 1 이상 감소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 말 현재 쌀 농사를 짓는 농가의 소득은 10ha당 49만원으로, 2005년(54만6천원)에 비해 10.3%(5만6천원)나 떨어졌다. 쌀값이 2년째 '제자리'에 머문 반면, 비료값과 농약값 등 생산비 부담은 크게 늘어난 탓이다.

또 핵가족화와 식생활 변화 등의 여파로 쌀 소비량이 꾸준히 줄어든 것도 논 면적 감소에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논 농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타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달 현재 전국의 쌀 재배 면적은 93만5천766ha로, 1987년(126만2천ha)에 비해 25.8%나 줄었다.

지역별로는 전남의 논 면적이 전체의 20.2%로 가장 넓었으며, ▲충남 17.4%(16만2천ha) ▲전북 15.1%(14만2천ha) ▲경북 13.2%(12만4천ha) 등의 순이었다.

시·군별로는 전북 김제(2만3천112ha), 충남 당진(2만1천830ha), 충남 서산(2만834ha) 등의 논 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해남의 논 면적이 1만9천698ha로 가장 넓었고, 영암(1만6천255ha), 나주(1만4천786ha), 고흥(1만4천454ha) 등이었다.

김치 및 고추수입 증가로 인해 고추 재배면적도 날로 줄고 있다. 현재 전국의 고추 재배면적은 4만8천825ha로 1년새 11.0% 줄었다. 이는 1997년에 비해 40.6%나 감소한 것이다.

전남도 현재 고추재배 면적이 8천305ha로 1년새 10.5% 감소했으며, 1997년에 비해선 34.8%나 줄었다.

김치 및 고추수입 증가 등의 여파로 전남 농가들이 고추농사를 기피하면서 고추재배 면적도 10년새 3분의 2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올림픽 선전 기원 금·은·동 신발 현대백화점 광주점(점장 황해연) 리복매장에서는 베이징 올림픽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7일부터 금·은·동색 컬러신발 판매에 들어갔다. 가격은 켤레당 9만9천원. 〈현대광주점 제공〉

"한국, 주택·부동산 규제 OECD國 최고"

주택協 보고서 … 분양가 상한제·취등록세 등 제한 많아

한국주택협회는 국내 연구보고서와 OECD 보고서를 기초로 비교한 결과 국내 주택·부동산 분야의 규제가 OECD 주요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협회는 자체 분석 결과 OECD 주요국가들은 민간 부문에서 분양가상한제, 분양가내역공시, 전매기간을 제한하는 규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취등록세 역시 OECD 주요국가 대부분은 취득세는 없고 등록세만 부과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보유세의 경우 OECD 주요국가들은 개인별로 산정하고 부채를 제외한 금액 또는 증가한 자산분에만 세금을 부과해 국내와 같은 종부세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담보인정비율(LTV)은 OECD 주요국가들이 80%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40~60% 수준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강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국주택협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양가 규제 및 전매제한 폐지, 취등록세율 인하 등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공장 설립 승인·건축허가 동시 신청 가능

총리실 '규제개혁안' 마련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은 7일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토지.주택.건축물 이용개발 규제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오는 11월부터 건축허가 신청시 요구되는 11종의 설계도서를 간소화할 방침"이라며 "이렇게 되면 기업은 몇개월 이상 걸리는 설계도서 작성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또 주상복합건물이 도로를 점용해 통행로로 사용할 경우 감면 규정없이 점용료를 전액 부과했으나,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감면 규정을 신설해 입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우수농산물 생산 … 경쟁력 찾자"

전국새농민회 전남도회 진도서 연찬회

(사)전국새농민회 전남도회(회장 박원종)는 7일 진도군 향토문화회관에서 2008 연찬회를 열어 '우수농산물을 생산해 농업의 활로를 개척하고, 경쟁력있는 지역농업의 선도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연찬회에는 박재영 전남도 행정부지사, 이덕수 농협전남지역본부장, 우호휘 (사)전국새농민회장 등 기관단체장과 7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8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도회는 21개 시·군 분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을 통해 영농의 과학화와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선도농업인 단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건국 60주년 기념·독도 사랑 등

지역 백화점 '애국심 마케팅'

백두산·독도 여행권 매출액 일부 기부도

광주지역 백화점들이 건국 60주년과 광복절을 앞두고 '애국심 마케팅'에 나선다.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15~17일 신세계 포인트카드 소지고객을 추첨해 7명에게 백두산 3박4일 여행권(개인당 2매씩), 7명에게 독도 2박3일 여행권(개인당 2매씩)을 증정한다.

또 15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독도사랑' 티셔츠(1일 500명 한정)를 나눠주며, 1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독도사랑 페이스 페인팅을 진행한다.

백화점 식품매장에 입점한 달로와요 베이커리 코너, 이마트의 데이앤데이 베이커리 매장에서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판매된 케익 매출액의 1%를 독도 수호기금으로 적립, 독도 관련단체에 기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건국 60주년을 기념, 15~17일 광복절 주말 3일간 세일 및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60% 정도의 브랜드가 참여를 하는 세일은 10~5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광주점은 16일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로 널리 알려진 독도 명예군수 정광태씨를 초청, 노래에 대한 이야기와 참여고객과 함께 노래 부르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다.

16~17일에는 독도의 풍경을 액자로 만든 사진전을 열고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독도 바로 알기' 책자도 증정한다.

이에 앞서 15일에는 태극기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를 1층 정문에서 진행하며, 태극기 페이스 페인팅과 태극기 손수건을 무료로 나눠준다.

또 5층 넥타이매장에서는 15~17일 광복절 맞이 태극기 넥타이 디스플레이전을 진행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신기술 사업화 사업 중기청 12일 설명회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춘근)은 12일 지방청 대강당에서 '2008년 신기술사업화평가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신기술의 개발타당성, 시장성, 성공가능성, 사업전략 수립 등을 평가해주는 프로젝트다.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업력 7년 이내의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평가결과 우수과제는 내년도 중소기업청 연구개발(R&D)사업에 자동 연계지원(최대 2년, 5억원까지)이 가능하며, 우수과제 중 일정기준의 요건을 갖춘 기업이 희망하면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도 지원해준다.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1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2~3인의 프로젝트팀을 구성, 신청해야 한다. 외부전문가는 신청 기술관련 전문가, 사업화 기획 전문가(컨설턴트) 또는 투자심사역 등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신청은 사업 홈페이지(www.smbafs.or.kr)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 문의 (062)360~9156.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